

석탑산업훈장을 받기까지



정 일 섭
(본회 전 공주지부장)

내가 도시의 규격화된 생활에서 벗어나 농촌에 정착기로 하고 공주에 내려 온 것은 12년이 조금 못 되는 1977년 봄이었다.

운전면허 하나만을 앞세워 상경했던 나는 조그마한 농장을 가져 보겠다는 소망으로 운전기사로, 때로는 막노동꾼으로 7년 동안 일하며 저축한 200여만원을 당시 호황을 누리던 육계에 투자하는 것으로 농촌 생활의 첫 장을 열었던 것이다.

아무런 경험도 없었으면서 그저 막연히, 낭만적인 기대에 들떠 일을 벌려 놓은 것 만으로 손 안에 쥐어진 줄 여겼던 무지개빛 꿈은 채 1년도 못가서 밀려 온 육계 파동으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다행히 큰 손해는 없었지만, 농촌에 정착해 보겠다는 꿈이 환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으로 이제 막 안정되기 시작했던 서울 생활에 대한 미련때문에 후회스럽기도 했다.

육체적인 고통에는 그런대로 길들여져 쉽게

적응할 수 있었지만, 정신적인 충격은 6개월여 동안 방황하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게 해 주었다.

축산 기반이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것도 문제점이었지만, 그보다 우리나라의 농촌 현실은 뼈를 깎는 노력이 없이는 먹고 살기조차 어렵다는 것을 백안시하고, 환상에만 치우친 안일한 자세와 사전계획 수립이나 관련된 정보 수집 등을 통한 시장분석의 중요성을 인식치 못했다는 결론을 얻었다.

차츰 새로운 시각으로 농촌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와 밑거름 다시 시작해 보려는 의욕이 생길 무렵 아내를 알게 되었고, 아내의 조언을 받아 결혼을 하는대로 양돈을 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신혼의 들뜬 기분으로 나는 리어카를 끌고 아내는 뒤에서 밀어주며 모래와 자갈을 실어 나르고 흙벽돌을 찍어 내기 한 달여만에 거의 우리 부부의 힘 만으로 20평짜리 돈사를 완성시킬 수 있었다.

양돈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던 나는 수소문 끝에 동화농산을 찾아가 순종 자돈 7두를 구입해 들인 뒤 양돈으로 기어이 성공하리라는 다짐으로 밤낮 없이 정성을 다해 사육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생활비와 사료대의 마련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고 만다면 평생 고생을 면치 못한다는 생각에 어떠한 시련이라도 견디어 내야 한다고 이를 악 물었다.

그렇다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해서 의논 끝에 돼지 사육은 아내가 맡기로 하고 신혼중의 아내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서울로 돌렸다.

생활비와 사료대의 충당을 위해 택시운전을 시작하긴 했지만 마음속은 아내와 돼지 생각 뿐이었다.

그후 몇 달 뒤의 추운 겨울날 나와 마찬가지로 양돈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던 아내가 처음 분만한 13마리의 자돈을 보온이 안된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 모두 동사시켰다는 아내의 전달을 받게 되었다.

일순 망연자실 했지만 내 손으로 돼지를 키우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결론을 얻어 다시 집으로 내려와 양돈에 전념하기로 했다.

책을 통해서 대강의 이론과 지식은 얻을 수 있었지만 분만 징후를 알지 못해 모돈 옆에서 사나흘씩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도 하면서 비로소 50여두의 자돈을 이유시킬 수 있었다.

말로 표현키 어려운 기쁨이었다.

그중 일부 자돈을 판매한 뒤 나머지를 비육시키거나 후보돈으로 선발해 모돈을 늘려 가겠다고 희망에 차 있을 때 또 다시 시련이 찾아왔다.

지금까지 최악으로 기억되는 1980년의 양돈 불황이 그것이었다.

기가 막혔다.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순식간에 빚더미에 올라 앉게된 형편이 되자, 친지들은 물론 부모 형제들까지도 격려보다는 가망성 없는 사업에서 손을 떼라는 종용을 해대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150두 규모로까지 끌어 올려 농장의 기틀을 다지고 말았다. 차츰 사육규모가 늘어감에 따라 자금압박으로 인해 양돈을 포기할 뻔한 위기가 그 뒤로도 몇 차례 더 있었으나, 더러는 사체를 끌어 쓰고 농협의 융자를 받기도 하는 등의 악전 고투와 함께 결국 내 별명이 되어버린 “미친놈” 소리를 수 없이 들어야 했던 나에게 결정적인 전기가 주어졌다.

1982년 6월에 농어민 후계자로 선정되어 6백3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게 된 것이다.

어려운 위기를 그런대로 잘 넘겨 왔으나 사실상 가장 큰 곤경에 처했던 나는 진정한 농민이 될 수 있는 기회와 전업규모의 농장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므로 해서 하늘의 도움으로 여기고 기뻐했다.

다행히 양돈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돼 사료대를 정리하는 한편, 후계자 자금으로 축사를 증축하고 단기간의 경험이었지만 양돈의 성패는 우수환 중돈의 확보에 좌우된다는 것을 깨달아 중돈 구입에 큰 비중을 두기 시작했다.

그리는 사이 내가 보유한 중돈의 우수성과 그동안 습득해 온 사육기술을 인정받게 되어 내 농장이 공주농고 축산과의 실습장으로 지정받았고, 나는 축산 지도위원으로 위촉되어 매년 15~20명의 장·단기 실습생을 농장에서 지도해 주게 되었다.

어느 정도의 성취감이 주어졌다고 생각한 나는 내 농장 밖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사회 활동을 활발히 해 오던중 1984년 12월에는 양돈협회 공주지부장으로 선출되어 양돈농가의

보호와 양돈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기꺼이 봉사하려는 자세를 가다듬게 되었다.

마침내 나는 농촌을 사랑하고 지키려는 마음과 양돈으로 입지해 보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자신을 다그쳐 과학적인 사양관리와 경영합리화에 역점을 둔 농장관리를 해 오므로써 공주군에서는 손꼽히는 2,000두 규모의 농장을 일구어 놓고 말았다.

거기다 농민으로서 가장 명예로운 석탑산업훈장까지 수여받았으니 10년 남짓한 기간에 최소한의 꿈이 실현된 셈이다.

여기서 한 가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은 양돈협회라는 조직의 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도움이 되어 주었나 하는 점이다.

지부장직을 수행하기 위한 내의 활동을 통해

넓은 견문을 익힐 수 있었고, 나를 도와주신 많은 양돈 선배·동지를 만날 수 있었다. 또 인간적으로 더욱 성숙한 경영인이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협회를 통해 습득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불황이 예고될 때는 과감히 사육두수를 감축하고 호황에 대비할 줄 아는 지혜를 배웠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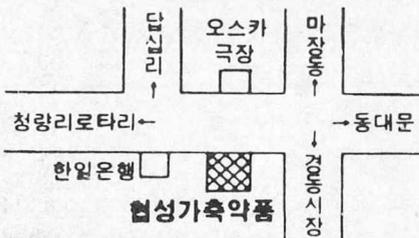
오히려 개인적인 성공보다도 양돈인의 끈끈한 연대의식과 동료애를 확인한 것이 더 큰 소득이 아닌가 생각된다.

끝으로 부족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의 영광과 성공이 가능토록 도와주신 여러 어르신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특히, 수 없이 헤쳐온 역경의 길을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참고 내조해 준 아내에게 모든 공을 돌리고 싶다. 

동물약품도매전문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30년 전통의 판매업소
 가축용 예방약, 치료제, 소독제등 일체총판
 주야 전화상담환영 (질병문의 및 판매업소 개설상담)
 지방주문 환영 (신속하고 정확한 배송)



 **협성가축약품**
 * 동물약품도매전문 *

〒 131 서울·동대문구 계기1동 654
 (오스카극장 앞)

본사 967-8779, 964-4870
 청량리영업소 965-9778